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용한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조기홍* · 임화영** · 최순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근로복지공단 ·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A Study on the Indicator Development using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from Domestic and Overseas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Kee-Hong Cho* · Hwa-Young Rim** · Soon-Young Choi***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evaluated the indicators of GRI guideline LA6-LA9 for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n 22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and 46 overseas reports published by companies in 2007 and 2008, was developed new indicators with emphasis on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and was assessed whether they are released. As a result, LA6(Percent of total workforce represented in formal joint management-work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that help monitor and advis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as evaluated highest in release ratio on whether to release the reports by each indicator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using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GRI guideline, and in the case of overseas companies, it was evaluated that there is no companies that release all from LA6 through LA9 among GRI guideline, but it was grasped that the ratio of partial release is high. As for the release of indicators was developed with the use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of 22 domestic companies, the release of indicator No. 1(report and industrial disaster record) and 10(health diagnosis)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f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CSR) that has not been attempted so far with the use of new indicators developed with emphasis on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Key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GRI guideline, Industrial Safety Health Law

1. 서론

1950년대 초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움직이는 과녁(moving target)과 같

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Lisa, 2003), 현대적 의미에서 Bowen(1953)은 기업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책무(social obligation)이며, 기업이 우리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 및 행동을 수행 할 책무로 개념화하였으며,

† 교신저자: 최순영,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4동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2북 668A

Tel: 032-860-8702, E-mail: welcom-news@hanmail.net

2009년 10월 20일 접수; 2009년 12월 9일 수정본 접수; 2009년 12월 11일 게재확정

Carroll(1979)은 사회적 책무를 경제적 책임, 법적·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세분화된다고 하였다(이장원, 2006; 노광표 등, 2007).

21세기 들어서면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공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등의 주제를 통하여 경제, 인권, 노동, 제품, 사회, 환경 등의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기구(ISO)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각종 기준과 원칙을 제정하고 있어 이제 기업의 활동에서 CSR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윤각 등, 2007;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2008; 노한균, 2008).

과거 기업은 경제 성장과 기업 성장이 사회 성장의 추진력으로 인식하였으나 현재는 사회적 책임(CSR)의 방법으로 윤리, 투명 경영 등 지속가능 패러다임을 통한 사회 성장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활동 결과와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지속가능경영이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리더십을 갖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통합된 전략과 경영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등장하게 되었다(주정 등, 2005; 김선화, 2006; 이기훈 200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 93개국의 3,915개 기업(CorporateRegister.com, 2007년 8월 기준), 국내 약 40개 기업이(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07년 기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 발간 기업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은 UN 글로벌 컴팩트, GRI guideline, SA8000 등의 다양한 국제적 기준이 발표되면서 2000년대 이후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선화, 2006; 이장원, 2006),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있어 이들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제 3중기관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공개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평가지표로는 GRI guideline의 노동 여건 및 관행 성과 지표와 SA8000 요구사항의 보건/안전(Health & Safety)등이 있으나 노동의 한 분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광범위하여 지표를 이용한 보고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보고서 공개 여부를 평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용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법에 맞는 공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여 추후 기업의 보고서 발간 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이 요구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공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시스템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7년과 2008년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국내 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경영원에 검색 가능한 22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외 보고서는 CorporateRegister.com에서 실시하는 "The CR Reporting Awards 2007"의 각 분야별 46개의 우수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보고서에 대하여 사업장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등 10인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개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분석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다음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표 1>의 GRI guideline의 직장 보건 및 안전의 항목 지표인 LA6~LA9에 대한 내용의 보고 여부를 공개(O), 일부 공개(△), 비공개(X)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국내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GRI guideline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내에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해당 되는 지표를 <표 2>와 같이 새롭게 구성(이하 산안지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공개(O)와 비공개(X)로 분류하였다.

실질적인 평가 방법은 <표 3>과 같으며,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uideline에 대한 보고여부와 산안지표를 이용하여 공개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국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산안 지표를 제외한 GRI guideline만을 이용하여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 여부를 평가하였다.

<표 1> GRI 노동 여건 및 관행 성과 지표 해석: 직장 보건 및 안전

지표		내용
부가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 는 직원 비율
핵심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제해 건수(지역별)
핵심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 램
부가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표 2> 산안 지표(산업안전보건법 중심)

산안 지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1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
산안2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산안3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4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안5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산안6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산안7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산안8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산안9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산안10	제43조 건강진단

<표 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평가 예

기업명	Page	보고서 내용	GRI		산안	
			지표 번호	보고 여부	지표 번호	보고 여부
A기업 (2008)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기업은 노사 각 책임자 7명으로 구성된 산 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과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는 공장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공통 안전에 대하여 필요시 공장별 노사 대표로 구 성된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보 건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노사합의를 통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A6	O	산안2	X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율과 총 손실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에 국내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건수는 661건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일수 는 총 102,924일로 2006년에 비해 43,607일 감소 하였고, 신병에 의한 병가 일수는 발생하지 않았습 니다.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발생 건수가 증 가하였으나, 재래형 안전사고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의 재편 시에는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해 직업성을 고려한 설비를 설계 및 설치 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조치의 강화, 현장에서의 사전예방 활동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다각 적인 노력의 결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06년 과 비교하여 20건 감소하였습니다. 	LA7	△	산안3	O

3. 결 과

3.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개 여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 지표별 보고서 공개 여부는 <표 4>과 같다.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의 경우 8개 기업(36.4%)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지표 중 공개 여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4개 기업(63.6%)이 보고서에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개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는 18개 기업(81.8%)이 일부 공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공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외 기업의 경우 GRI guideline 중 LA6, LA7, LA8, LA9까지 전체 공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공개 현황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지표의 공개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의 일부 공개 여부는 27개 기업(5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이 43개 기업(93.5%)으로 비공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4>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개 여부

GRI guideline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LA6	8개 기업 (36.4%)	-	14개 기업 (63.6%)
LA7	-	9개 기업 (40.9%)	13개 기업 (59.1%)
LA8	-	15개 기업 (68.2%)	7개 기업 (31.8%)
LA9	1개 기업 (4.5%)	18개 기업 (81.8%)	3개 기업 (13.6%)

<표 5> 국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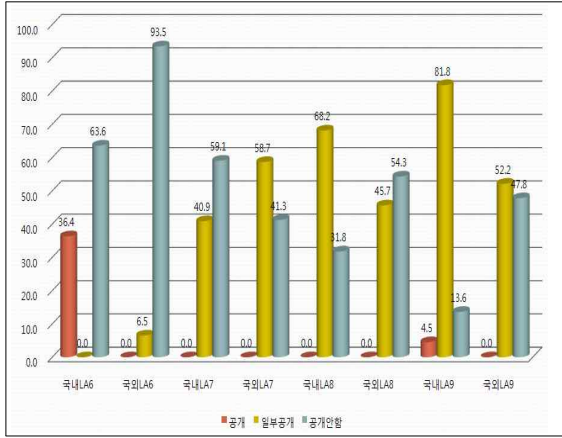
GRI guideline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LA6	-	3개 기업 (6.5%)	43개 기업 (93.5%)
LA7	-	27개 기업 (58.7%)	9개 기업 (41.3%)
LA8	-	21개 기업 (45.7%)	25개 기업 (54.3%)
LA9	-	24개 기업 (52.2%)	22개 기업 (47.8%)

3.2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평가 비교

국내 22개 기업과 국외 46개 기업의 GRI guideline의 LA6, LA7, LA8, LA9의 지표의 공개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국내 기업은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이 8개 기업(36.4%)이 공개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표에 비하여 공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외 기업은 이와 반대로 보고서에 전체 공개 한 기업은 없었으며, 일부 공개한 기업 또한 3개 기업(6.5%)으로 공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은 국내 기업과 국외기업 모두 GRI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고서에 일부 공개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9개 기업(40.9%), 국외 27개 기업(58.7%)으로 나타나 국외기업의 일부 공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과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는 국외기업에 비하여 국내 기업의 일부 보고 현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외 기업 간에 보고서 공개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국내·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평가 비교

3.3 산안지표를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보고서 공개 여부

22개 기업의 산안지표를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 지표별 보고서 공개 여부는 <표 6>과 같다. 산안지표 중 공개 여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지표 번호는 산안1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과 산안10(건강진단)이 각각 14개 기업(63.6%)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 보고서에 비공개 하고 있는 지표로는 산안7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23개 기업 (95.5%)과 산안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안5 (안전상의 조치)가 각각 20개 기업(90.9%)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 산안지표를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보고서 공개 여부

산안지표	공개	비공개
산안1	14개 기업(63.6%)	8개 기업(36.4%)
산안2	1개 기업(4.5%)	23개 기업(95.5%)
산안3	11개 기업(50.0%)	11개 기업(50.0%)
산안4	2개 기업(9.1%)	20개 기업(90.9%)
산안5	2개 기업(9.1%)	20개 기업(90.9%)
산안6	13개 기업(59.1%)	9개 기업(40.9%)
산안7	1개 기업(4.50%)	23개 기업(95.5%)
산안8	12개 기업(54.5%)	10개 기업(45.5%)
산안9	8개 기업(36.4%)	14개 기업(63.6%)
산안10	14개 기업(63.6%)	8개 기업(36.4%)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과 2008년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국내 보고서 22개, 국외 46개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사업장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등 10인을 구성하여 GRI guideline의 LA6~LA9의 항목 지표에 대한 공개여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이하 산안 지표)하여 공개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을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 지표별 보고서 공개 여부는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의 경우 36.4%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는 81.8%로 일부 공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국외 기업의 경우 GRI guideline 중 LA6, LA7, LA8, LA9까지 전체 공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공개 현황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국내·외 기업의 GRI guideline의 LA6, LA7, LA8, LA9의 지표를 이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국내 기업은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의 공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외 기업은 이와 반대로 보고서에 전체 공개 한 기업은 없었으며, 일부 공개한 기업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은 국내 기업과 국외기업 모두 GRI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공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과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는 국외기업에 비하여 국내 기업의 일부 보고 현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외 기업 간에 보고서 공개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2개 기업의 산안지표를 이용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보고서 공개 여부는 지표 번호 산안1 (보고 및 산업재해 기록)과 산안10(건강진단)이 63.6%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 보고서에 비공개 하고 있는 지표로는 산안7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과 산안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안5 (안전상의 조치)가 90% 이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GRI guideline과 산안지표의 공개여부 평가 결과는 각

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 포함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공개 및 비공개 비율이 높은 지표의 경우에는 추후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시 이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여 하여야 공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의 발간 비율은 매우 낮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간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보고의 충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늦추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발간을 권장하고자 진행하였으며, 보고서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범위는 기업의 재무,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 비하여 내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공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기업들이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 발간 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평가 범위 안에서의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공개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의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업종간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GRI guideline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개발된 산업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CSR)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모델링화를 제안하며, 일반인과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보고서가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5. 참 고 문 헌

- [1] 김선화,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경영정보, 17(1) (2006).
- [2] 노광표, 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사회, 1 (2006) :119.
- [3] 노한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동향 - 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3) (2008).
- [4] 윤각, 조재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 (2007).
- [5] 이기훈,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이해관계자 대응전략”,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
- [6] 이장원, “이슈분석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노사관계”, 노동리뷰, (8), (2006).
- [7]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외국인 투자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태 연구”, (2008).
- [8] 주장, 이종오, “한국기업의 사회보고서 표준 개발에

- 관한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24), (2005) :257-291.
- [9] 한국노총, “국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보고서 및 실태조사”(2008).
- [10] Bowen, H. R.,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per & Row, (1953).
- [11] Carroll, B.,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1979) :497-505.
- [12] Lisa Whitehou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iews from the Frontline”, Journal of Business Ethics, 63 (2006) :279-286

저 자 소 개

조 기 홍



가톨릭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업위생분야 등이며, 현재 (사)한국산업위생학회 홍보이사과 전국산업보건분석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1동 삼성APT 103-105

임 화 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박사 취득. 현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연구조정팀장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산업보건, 업무상 질병 등이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6층)

최 순 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 취득. 현재 한국환경보건안전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 관심분야: 산업보건, 인간공학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동 인하대학교 2북 668A